

숭대극회 제12회 정기공연

노년의 아름다움의
기쁨이

F.Arabal 작



때 : 1975. 6. 9(MON) 10(TUE) 12(THU) 13(FRI)
7:00 PM

곳 : 숭전대학교 대학극장



격 려 사

날로 발전하는 중대극회가 세계적인
극작가 아라발의 두 작품을 공연하는
意義는 크다고 봅니다.

善의 追求를 작품의 큰 테마로 잡고
있는 아라발의 연극세계는 혼탁한 세상
에서 어떻게 한평생 善하게 살수 있는
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전쟁터의 산책』은 특히나 韓國動亂이
동기가 되어 쓰여졌다하니 우리의 체험
이 어떻게 世界的인 표현과 반응을 얻을
수 있느냐하는 그 본보기를 볼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이런 값진 연극작품을 통해서 우리
승전의 젊은이들이 人間性에 대한 통찰
과 社會에 대한 관찰과 또한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종합적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종합예술
로써 모든 다른 예술의 표현양식이 복
합된 하나의 예술형식입니다. 따라서 자
기 표현의 기술을 연마하고 달성하는 일
에 치중하는 본교의 교육 목표중의 한
가지를 이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취하
는 일은 그지없이 바람직한 일이 되겠
습니다. 지금 승전의 캠퍼스에서 면학
에 힘쓰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개방 사
회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연극속에서 人間性의 진리를 발견하고
人生의 참 뜻을 깨닫는 일은 중요한 일
이 되어집니다.

이번 공연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절
은 승전인들에게 보람이 되고, 승전의
빛나는 역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장 이 한빈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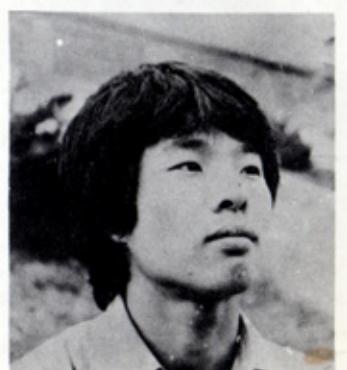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아라발의
눈은 사슴의 눈동자처럼 맑고, 순진하
고 아름답다. 이 연극을 하는 동안 우
리 모두가 잠시나마 그런 「눈」이 되어
보자. 그런 「눈」을 갖는 일과, 그런 「눈」
으로 보는 일과, 그런 「눈」으로 저항하
는 일은 고귀하다.

지도교수 이 태주

전쟁터산책 CAST



제포 전 경호(공 1)



자포 안 홍택(철 3)

STAFF

기획	김홍수	(무 3)
연출	안홍순	(철 3)
조연출	신기홍	(문 1)
무감	김기열	(기 2)
장치	여종훈	(전자 3)
효과	김효성	(경 4)
조명	이영표	(전자 3)
의상	이진선	(문 1)
소도구	민승기	(전자 2)
분장	곽희숙	(문 1)



김효성



이진선



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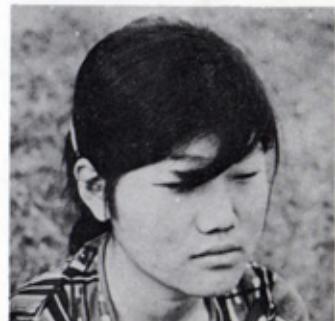


학회숙

전쟁터 산책 CAST



떼 GANG 씨 김 흥수 (무 3)



떼 GANG 1

췌르난도 아라발

(Fernando Arrabal)

페리아(스페인령 모로코)에서 1932년 태어나서 마드리드에서 법률 공부를 한 후, 1954년 이후 내내 불란서에서 살면서佛語로 회곡을 써 온 아라발은 스페인 국내에서 보다도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不條理劇作家이다. 아라발의 演劇世界 속에서 탐지되는 不條理性는 인간 존재의 탐구에서 비롯되는 철학적 절망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눈에 비친 인간 상황의 不可解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도덕적 법칙의 존재를 이해 한다거나 인식하는 일이 불가능한 단순하고 소박한 눈으로 바라보는世界的의 잔인성 때문에 그의 作中人物들은 한결같이 괴롭다. 이 世界의 잔인성을 無意味한 재난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라발의 최초의 회화 작품인 「전쟁터의 피크닉」은 이같은 그의 입장이 확실한 방 법으로 노출된 작품이다. 韓國動亂의 뉴스를 접하고 계속 전쟁터의 소식에 접하면서, 그리고 전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색하면서 써낸 이作品은 그의 나이 스무 살 때의作品이다. 이 짤막한一幕劇은 전선에서 고립된〈자포〉라는 한 병사들을 그리고 있다. 그의 부모들은 전쟁의 잔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방문하여 함께 일요일의 피크닉을 즐기려고 한다. 그때 敵兵(체포)가 나타나서 〈자포〉는 그를 모로로 잡지만, 곧 그를 그들의 피크닉에 초대한다. 파티가 한참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불연히 기관총이 불을 뿜어 이들은 물살 당한다. 천진난만한 인간의 단순성과 경백성이 처절한 인간의 잔인성과 혼합되어, 어둡고 참혹한 한 폭의 인간 통경이 전개된다. 해피엔드가 없는 喜劇이 곧 아라발 작품의 특징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1958년에 출판된 아라발의 「劇作集」 속에 나오는一幕劇「기도, 어떤 神秘劇」도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善한人生이란 어떤 것인가를 모색한 작품이 된다. 그의 작품 「두 사람의 死刑執行人」에서도 우리는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이 작품에서는 인습적인 도덕이 자기모순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난받는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그의 작품 「환도와 리스」에서는 사랑의 양극성을 타루고 있는데 유년기의 감정을 成人の 세계에 투영하여 아라발은 회비극적인 효과를 실화시키고 있다. 이 작품들은 成人的 감정 및 바닥에 존재하는 진실을 밝히고 있다. 그의 작품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도 方法面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墓地」는 그의 야심작이다. 童心의 눈을 통하여 본 그리스도의 수난을 그로-메스크한 풍경속에서 펼쳐 보인다. 불결하고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 善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테마를 짚고,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善의 追求가 이 세상에서는 不條理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悲劇性을 내포하고 있다. 아라발에 있어서의 善의 문제는 사랑과 잔인성과의 관계를 뗣고 있기 때문에 그 意味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아라발은 人間에 대한 흥미가 강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 内容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抽象的 演劇의 발전에도 큰 흥미를 갖고 있다. 「연극적 오케스트레이션」(1959년 가을 初演)에서 는 주상적 立体物의 운동만으로서 이룩되는 연극적 스페셜效果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괴상한 스케타들의 刑式的 世界는 크레, 몬드리안, 데모니 등의 발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아라발은 기계적 운명의 不調和야말로 高度의 회극적 효과의 잠재적 원천임을 믿고 있다.

(마틴·에스린著「不條理演劇」参考)

전쟁터 산책 CAST



위생병 I 한 승희(법경 1)



위생별 II 날 역희(번경 1)

公演年譜

回	年 度	作 品 名	演 出
1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2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3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4	1970년 5 : 15	"聖者의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5	1970년 10 : 28, 29	"勝負의終末" 사무엘·베케트作	김양기
6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년목상화 * 윤조병作 담배해독에 대해서 * 안톤체홉작 황금단지(로마극) 푸라우터스작 *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베케트작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7	1971년 11 : 4, 5	저격병의그림자 산·오케이시작	차현재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 H. 펀터작	한영재
9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결혼 F. 위렌마트작	고봉인
10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펀터作 기도(小) F. 아라발作	차현재
11	1974년 5 : 27, 28, 30	정의의사람들(전5막) A. 까뮤작	정종화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CAST



빠삐리 이승원(문 1)



리스까 홍윤옥(사사 3)



마리그 이용식(전자 2)



기획의 말

한달 반 동안 작업
복으로 극장을 뒹굴다
이제 정장을 하고 여
러분들을 모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내를, 성실을, 진실을,
그리고 노동의 참맛을 배웠습니다. 그러
기에 일요일, 공휴일에 등산가는 학생들
을 부려워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희구하던 학생 연출로
막을 올리게 됨이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합
니다. 신입생이 주축이 되었기에 미숙한
연기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에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막을 올리기까지 사랑의 채찍을 아끼
지 않으신 총장님, 학생처장님, 지도교수
님 이하 우리 국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극회장 김홍수

演出의 辯



内部로 솟아나는 가벼
운 천율을 느끼며 두 人
間 - 「마리그」와 「리스까」
- 을 永遠으로 구출해보

고 싶은 충동을 알았다. 그들들은 이 世
上에 現存하지 않을 영원한 人類의 人間
像 일지도 모르겠다. 現代文明의 속박으로
부터 벗어 나려고 애간 힘을 쓰나 아무곳
에도 말불일 곳이 없는 그들에게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인 거북이 속에서 人類太
初이래로 現在까지의 歷史를 또한 未來를
指向하며 물의 사랑으로서 現實을 否定하
지 않고 긍정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
려는 強한 人間意志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러기에 나는 이 作品을 演出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마그리와 리스까를 영원한 사
랑의 表像으로서 그리고 싶었다. 또한 作家의
作品의도에 편승하여 「빠삐리」 - 그
는 그들의 科学文明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구체하고 싶은 人間愛의 發露
를 感知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빠삐리」
그를 現代文明의 회생자로서 무한한 동정
을 하면서도 그를 오늘을 사는 人間(회국
배우)으로서 그리고 실은, 세차게 충동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根源으로 부터
솟아나는 호기심을 지닌채 이 演劇에 參与
한 여러분들에게 感謝를 드린다.

哲学科三年 安興津

